

'현우경' 이야기 (52)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⑤

선사는 공주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다시 거리에서 거문고를 연주했다. 선사의 연주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공주는 왕궁에서의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없는 거리에서 선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버린 공주는 그래도 선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선사와 공주 앞에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다. 공주는 물었다.

"누구세요?"

"혹 옆에 계시는 분이 선사 태자가 아닌 신지요?"

"태자...라니요? 누가 태자인 말입니까?"

공주는 남자를 뻔히 쳐다봤다. 선사의 거문고가 멈췄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태자의 손을 잡았다.

"태자님! 선사 태자님이시지요? 살아 계셨군요. 저희는 태자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돌아오시지 않고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제 저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야지요. 다시 태자님의 자리를 찾으셔야지요"

공주는 놀라물었다.

"태자라니요. 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태자는 그간의 일을 공주에게 말해주었다. 보시를 하기 위해 섬을 찾았고 거기서 여의주를 구하고 또 악사가 선사를 해친 일까지 공주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악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자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공주는 그 눈물을 닦아 주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신 또한 태자의 마음에 감복했다. 사신은 말했다.

"잠으로 태자님의 마음이 가혹하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숨긴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사 왕자에게도 용서를 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나. 왕께서는 악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눈이 멀어버린 내가 돌

악사는 여의주를 선사에게 주고...



삽화·강병호

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왕과 왕비님께서 에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결국 사신의 설득 끝에 태자는 공주와 함께 잠부드비파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신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였다. 궁에 도착한 선사를 보고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니가 남떠러지에서 떨어져 파도에 휩쓸

려 죽은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살아 있더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선사는 손을 더듬어 왕비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왕비는 이내 선사의 눈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다. "너의 눈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알아 보이지 않는 것이냐?"

"남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눈이 상해 버렸습니다"

한편, 악사는 잠을 잘 때마다 선사가 나

타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선사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도 잠깐 낮잠을 자며, 선사가 나타나 자신이 궁에서 쫓겨나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때 시녀 하나가 들어와 선사가 왔음을 알렸다. 선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행님이 왔다면 이미 모든 것을 말해 버렸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자가 되지도 못하고 벌을 받고 이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악사는 멀리서 선사의 모습을 보았다. 왕비는 선사를 안고 울고 있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만 같았다. 악사는 조용히 가슴에 품고 있던 독약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입에 털어넣었다.

선사는 악사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선사는 시녀를 앞세워 악사의 처소로 가는 길에 죽어가는 악사를 발견하게 된다. 선사는 악사의 손을 잡는다. 악사의 입에서 피가 튀어 나왔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바마마와 어마마마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너를 용서하고 싶었다. 제발 죽지 말라.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 오게라"

"행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 제 죄만큼의 벌을 받고 다음 생애에는 형님을 돕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죽지 말라. 죽어서는 안된다. 악사야!"

결국, 악사는 가슴속에 여의주를 꺼내 선사의 손에 쥐어 주고 눈을 감았다. 왕과 왕비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은 악사의 행위가 패륜하기도 했지만 그런 죽음을 택한 아들이 한없이 가여웠다. 그들은 큰 재를 지내 악사의 죽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3년 후 선사와 공주는 잠부드비파 왕국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선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픈 백성에게 약을 나눠주는 성군이 되었다. 그리고 늘 여의주가 그런 선사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끝>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54)
- 성자가 된 도둑 -
구성·김흥인

와~ 저거 굉장한 보물인데...!
기회 좋...
옛날 인도에 한 도둑이 어느 사찰에서 금으로 만든 불족석(佛足石:부처님 발 모양을 본뜬 것)을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그는 거짓으로 사찰의 비구가 되었다.
들어온 목적을 꼭 이루게나!
이르다 뿐이겠습니까!
도둑은 기회를 노렸다.

도둑은 기회를 노렸다.
아냐 급할 것 없지! ㅎㅎㅎ
ㅎㅎㅎ 오늘 훔칠까?

자야 공부하러 가세~
공부 합시다!
그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고 경을 외었다.

너무 열심히 한다.
먼저 들주세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도둑은 점점 변해갔다.
그는 어느덧 진짜 스님이 되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그의 설법을 듣기위해 모여들었고

도둑질은 잊은채 수행에 몰두하였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정말 훌륭하시어!

결국 그는 사찰의 주지가 되었고 불족석의 지킴이가 되었다.
조심 조심...!

흥내라도 내보려고 했던 도둑의 수행이 도를 얻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내가 지킬 테니 그만 쉬거라!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우수조합원초청 보현사신협
대만성지순례 "그곳에 가고 싶다 Ⅲ"
2011. 10. 25 ~ 2011. 10. 29 (4박 5일)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 상담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원주길이 25mm ₩ 65,000
B 타입 원주길이 16mm ₩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 (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무선 음성 녹음
입금계좌(예금주: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3년 전통
초심의 열과 흠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